

교육활동 적극 보호, 교권침해 강력 대응

전북교육청, 교권보호위 개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법률 지원키로

전북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북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019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상충치유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충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교원상충치유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상담 및 진료 △학교 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등이 있다. 힐링 휴 프로그램은 수

박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1인도 지원해준다.

법률 지원도 계속된다. 교권법률지원단 및 고문변호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사업도 눈에 띈다.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학생이나 학부모,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교권 보호 활동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형 고교학점제 모델 만든다

도교육청, 일반고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리플렛 배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반고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관련 리플렛을 제작·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렛은 2025학년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전폭형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전체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는 어떤 제도인가? △단위제와 학점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북형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하여 일반고 학생 과목선택권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등 전체 6면으로 구성돼 있다.

리플렛은 지난 5일부터 일반고 94개교에 보급되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등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 과목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로중점학교 운영, 소수학생 선택과목 개설 확대,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 연계 주말강좌 운영, 고교학점제 준비(선도)학교 운영, 예·체능계 미래 인재 양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청년·女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고용노동부가 고용지원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을 단행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여성과 청년 등 일자리 정책 담당 국(局)을 세분화 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등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종전 고용정책실 산하의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고용지원정책관(신설) ▲통합고용정책국(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으로 나눈 것이 핵심이다.

신설된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해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법무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고용정책국은 중·장년과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청년고용정책

관 산하에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해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한시)'을 신설했다.

근로감독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뒤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과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뉴스시

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청렴도 제고 직무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9일 2층 대강당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237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성함양과 반부패·청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이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학교체육 혁신'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이 변화하는 세상, 학교운동부 운영'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또한 학생선수의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위한 온라인 학습 e-school 운영 방법과 사례, 최저학력제 운영사례, (성)폭력 예방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담은 교재를 편성해 배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교육지원청이 9일 관내 유·초·중학교 교(원)장 및 교육청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임실교육지원청, 교원 청렴문화체험 연수 개최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은 9일 관내 유·초·중학교 교(원)장 및 교육청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 김정화를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고불 맹사성의 청렴 정신을 배우고 그가 살던 맹사행당을 둘러봄으로써 공직자들의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했다.

정나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청렴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가 확산되고,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교육지원청은 청렴한 임실교육을 위해 지난 3일에도 관내 행동강령책임관, 행정실장 및 소속기관 직원 114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화합과 축제의 도민체전, 안전이 '최우선'

전북체육회, 경기장·편의시설 점검·선수간 폭행 엄중 대처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전북도민체육대회를 도민 행복 체육대회로 치르기 위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시설 점검이 한창이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각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을 위한 안전체계는 물론이고 편의시설 정비 사항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시군간의 과열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간 폭행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관계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도 체육회는 체육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등을 열어 출전 자격정지 등 징계 수위를 결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상위 입상을 위해 출전자격이 없는 선수 등록하기, 다른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선수 데리고 오기 등 각종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와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도민체전은 도내 14개 시군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회이기도 하지만 20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창군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도민체육대회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옹비하는 천년 전북!'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다. Co.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